

기획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16>

유럽편 들어가며

광주일보는 2011년 신년기획으로 '세계창조도시를 가다'를 통해 15차례에 걸쳐 일본의 창조도시 관련 정책과 도시공간의 특징, 사업 등을 살폈다. 유럽의 창조도시와 관련해서는 도시 정책 및 공간적 특징, 사업 등이 유사하다는 점을 감안, 모두 20개의 주제를 선정해 종합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 17. 도시와 노면전차(tram)
- 18. 도시와 자전거
- 19. 도시와 역
- 20. 도시와 주차
- 21. 도시와 가로
- 22. 도시와 거리카페
- 23. 도시와 간판
- 24. 도시와 가로시설물
- 25. 도시와 하천
- 26. 도시와 공원
- 27. 도시와 문화시설
- 28. 도시와 주택
- 29. 도시와 박물관
- 30. 도시와 생태
- 31. 도시와 공공시설
- 32. 도시와 바닥
- 33. 도시와 상가
- 34. 도시와 아케이드
- 35. 도시와 음식
- 36. 도시와 관광



런던 에딘버러 전경. 가운데 녹지를 중심으로 단독주택들이 죽 늘어서 있으며 중세에 지어진 우뚝 솟은 성당이 도시의 랜드마크가 되고 있다.

조화와 공존의 도시철학 유럽에서 배운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암마인강 주변. 고품스러운 중세 건축물과 현대적인 디자인의 건축물, 녹지와 강이 그림처럼 구성돼 있다.



프랑스 리옹 전경. 론(Rhone)강과 손(Saone)강을 중심으로 한 구도심과 그 뒤에 고층 건축물이 들어선 신도심이 조화를 이룬다.

광주일보는 유럽의 창조도시를 각계 전문가 조인, 문헌·자료 검토 등을 통해 영국의 에딘버러와 글래스고, 네덜란드의 덴 하그와 암스테르담, 프랑스의 리옹과 스트라스부르, 독일의 프라이부르크와 프랑크푸르트를 선정한 바 있다. 이들 도시에 대해 광주발전연구원 김광욱 박사 등과 함께 사전조사를 마친 뒤 지난 4월2일부터 15일까지 12박13일간 방문했다. 또 이들 도시들이 위치한 국가 간 이동 과정에서 영국 런던, 벨기에 브뤼셀, 네덜란드 로테르담 및 라이덴, 룩셈부르크, 프랑스 파리 등도 짧은 시간이나마 살펴볼 수 있었다.

'세계창조도시를 가다' 시리즈 유럽편은 일본의 창조도시로 평가받고 있던 요코하마·나고야·가나자와를 개별적으로 다뤘던 일본편과는 달리 주제를 선정해 각 도시를 살펴보는 방식을 도입했다.

세계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는 유럽의 창조도시 유럽의 도시들은 그 형성과정과 구조, 지방자치의 정도, 정책 결정에 있어서의 주민참여 정도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국가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토대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단기간에 이들 도시의 장구한 역사에 근거하면서 창조도시로서 형성돼 온 과정을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시리즈에서는 기반시설·녹지·문화시설 등 현상적으로 도시를 구성하고 있는 인자들이 어떻게 도시라는 공간 속에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도시민들과 소통하고 있는지를 살펴

볼 예정이다. 또 그러한 시설들의 운영 실태를 파악해 광주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도 이번 시리즈의 취지다.

전문가 조인, 문헌 및 자료 참조 등을 통해 창조도시로 분류된 이들 도시들의 공통점은 ▲전쟁으로 인해 폐허로 변한 구도심 재생이 도시운영의 핵심 ▲대중교통, 특히 노면전차(tram)와 자전거 위주의 교통시스템 ▲도시 곳곳의 광장·공원 및 거리카페 등을 통한 사람의 집적 ▲역사

해서는 오히려 그 부작용만 피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그들이 중요한 도시정책 및 사업을 선택해온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선례로 삼아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프랑스 리옹과 스트라스부르가 왜 철거했던 노면전차(tram)를 수십년이 지나 복원하고 독일의 프라이부르크가 원자력발전소 반대운동을 어떻게 도시생태 시스템으로 연계시켰는지, 영국의 에딘버러와 글래스고가 도시에 남아있던

구도심 재생·교통시스템 등 구석구석 살펴

주제별 도시정책 분석 통해 광주 미래 모색

와 문화를 간직한 구도심과 첨단 및 생태로 꾸며진 신도심 ▲외지인에게 친근한 도시 분위기 ▲거리 주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 이용료 부과 ▲소규모 박물관·미술관 등의 산재와 이를 연계하는 관광시스템 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고스란히 우리나라 각 도시들이 추구해야 할 목표가 되고 있음은 물론이다.

무엇을 얻고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그러나 앞서 언급한 대로 유럽 도시를 모델로 해 이를 그대로 광주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고대~중세~근대~현대에 이르기까지 완전히 다른 역사, 도시형성과정을 거친 곳을 답습

중세·근대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탈바꿈시켜 나가는 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 광주의 문제와 그 해결책을 엿볼 수 있을 것이다.

프라이부르크 울프 다세킹(Wulf Daseking) 도시계획국장은 "도시마다 그 특징과 역사가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도시를 발전시킨다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하다"며 "현재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당 도시에 살고 있으며 계속 살아갈 남녀노소, 전문가·비전문가 등이 객관적인 논의과정을 거쳐 미래 지향점을 찾은 뒤 다양한 도시들의 선례들을 보고 참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글·사진=윤현석기자 chad01@kwangju.co.kr



깨끗하고 건강한 캐나다 청정자연에서 탄생한 - Natural Factors (내추럴팩터스) 드디어 한국에서도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 캐나다에서 태어난 50년 역사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50여 개국으로 수출하여 글로벌 시장에도 우수한 품질확신!

2010년 12월 내추럴팩터스를 국제약품이 공식 판매 합니다!

청정자연에서 건강을 찾아 연구하는 캐나다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내추럴 팩터스 **50년 내추럴팩터스 역사를 담았습니다!** natural Factors



캐나다 대표 브랜드 내추럴팩터스는 수십만 평의 자체 허브농장에서 재배한 자연원료를 최첨단 자체연구소에서 우수한 연구기술진이 탄생시킨 고품질 명품 건강기능식품으로 원료에서부터 완제품까지 철저한 품질관리 시스템은 50여년 동안 명성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을 위해 철저하고 꼼꼼한 선택!-내추럴팩터스입니다!

Natural Factors 한국총판 가장 좋은 약은 사랑입니다. **국제약품공업주식회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648번지 http://www.kukjepharm.co.kr

제품문의 : (031) 781.9081 (고객지원팀)